정부, 수소전문기업 선정 속도 2040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

8개 기업 추가, 총 19개 기업 지정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판로개척·기술사업화·경영컨설팅

정부가 친환경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전문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늘려 2040년까지 1000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이후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해 총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15%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 수소전문기업 8곳〉 /산업부

분야	기업명	핵심분야
모빌리티	엠엔에스코리아(주)	연료전지 분리판 코팅장비
	넥스플러스(주)	수소차 연료전지 다공체
생산·운송	케이테크(주)	개질시스템 설계 제작
	에스디지(주)	수소가스 공급·유통
충전	발맥스기술(주)	수소충전소 설계·구축
	삼정이엔씨(주)	수소충전용 냉각기
	에스지티(주)	충전설비 시험 및 설치
연료전지	안파트너스(주)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시공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을 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 수소 충전기용 냉각장치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충전 인프라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삼정이엔씨㈜, 수소충전소를 설계·시공하는 발맥스기술㈜, 수소관련 제품 및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 등의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지정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부담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

취업·창업 등 다양한 인생경로 설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3~15일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채용관에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9월 셋째주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1시 열리고,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은 13일 12시~오후 5시, 14일과 15일에는 11시~오후 4시 진행된다.

12개 참가 기업은 줌(ZOOM)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채용면접을 통해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달 22일까지 채용관을 유지해 기업 소개 영상 및 채용 공고 등 정보를 게시한다.

최신 취업 동향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 부스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시간 라이브관에서는 8명의 전문 상담사가 지원자 자격·전문성·구직 희망 경로 등을 진단해 맞춤형 1:1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용혜원 시인, 최일구 MBN 뉴스 진행자,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열린다.

인생3모작 지원관에서는 취업성공 안내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등 신중년 지원 장려금·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취업 외 귀농·귀촌, 기술창업, 사회적 경제 참여 방법 등 다양한 인생경로도 설계해 준다.

강모씨(54)는 "오랜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간단하게 이력서 작성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는 무엇인지까지 취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안전기준 빠진 해외직구… 구입·사용 주의해야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제품 조사
181개 제품 중 24개 제품 기준 부적합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기 구매대행 제품을 조사했더니 13%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8월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181개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조2000억원, 2018년 2조9000억원 2019년 3조6000억원, 2020년 4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해외 구매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가 해외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뾰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 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스케이트보드와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등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두 시간이면 駐日 미군기지 타격

北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北 매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비난
군사 전문가들 "엔진 양산여부 관건"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결국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전날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국방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핵심 시설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전후로도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명의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美항모와 일본 노린 새로운 위협?

이날 노동신문은 "순항미사일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비행 시간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시속 700㎞의 속도로 비행했다. 표적까지의 사거리를 비교하면 한국군이 보유한 사거리 1500㎞의 현무-3C급이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으로 소형화 할 경우 미국 항공모함은 물론 주일본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북한의 해상억지력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는 "순항미사일에 적용되는 GPS/INS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된 기술인 만큼, 단순한 경로 지정에 따른 지형회피 비행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북한이 양산에 필요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엔진을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에 위협인가 내부 결속용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만큼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카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10월까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중국의 동계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끔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인삼·표고 등 농산물 선택요령 알려드려요"

농촌진흥청 봄에 생산된 녹차 품질 ⬆
9~11월 수확 인삼, 사포닌 함량 높아

수삼은 인삼 머리(뇌두)와 주위에 줄기가 잘린 흔적이 분명하게 남이 있는 것이 싱싱하며 잔뿌리가 많을 수록 좋다. /농촌진흥청

올 추석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선물하기 좋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로 차, 인삼, 표고를 추천하고 좋은 제품을 고르는 요령 등을 소개했다.

차는 녹차와 홍차 등 종류에 따라 맛과 향, 효능이 다양해 소비자 선태의 폭이 넓다. 차는 국내에서 봄에 생산한 녹차(첫물차)를 추천한다. 이 차는 맛이 진하고 품질이 좋다. 국산차는 지리적 표시제, 친화녕 인증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안전성이 우수하다.

인삼은 보통 9~11월에 수확하는데, 이때 수확한 인삼은 뿌리가 굵고 사포닌 함량도 높다. 수확 철 열리는 다양한 인삼 축제를 활용하면 인삼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은 인삼 머리(뇌두)와 주위에 줄기가 잘린 흔적이 분명하게 남이 있는 것이 싱싱하다. 또 몸통을 눌렀을 때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이 좋고 잔뿌리가 많은 수삼이 사포닌 함량이 높다.

표고는 양송이, 풀버섯과 더불어 세계에서 많이 재배되는 3배 버섯 중 하나로, 갓보다 줄기(밑동)가 식감이 쫄깃하고 항암물질(베타클루칸)도 줄기에 더 많이 들어 있으므로 제거하지 말고 갓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표고에는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도 풍부하다. 말린 표고 중 비타민 D가 많은 버섯을 섭취하려면 자연 건조한 것을 고른다.

/세종=한용수기자